

제25회 문학동네어린이문학상 수상작

★★★★★

어느 날 문이 사라졌다

술술 읽히는 재미로 독서 자신감 UP!

독후활동지





어느 날 문이 사라졌다

김은영 글 · 메그림 | 문학동네
초등 4학년 이상

책 소개

어느 날 아침, 일어나 보니 집의 현관문과 창문이 모두 사라졌다. 집 안에 꼼짝없이 갇혀 버린 것이다. 해리와 해수 남매는 난생처음으로 라면을 끓여 보고 화장실 청소에도 도전하고, 둘이서만 잠을 자며 엄마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 낸다. 전화도 인터넷도 불통. 그나마 아이들을 세상과 이어 주는 것은 띄엄띄엄 연결되는 동영상 앱(App) 아이튜브뿐. 해수는 자신의 아이튜브 채널 '안했슈 TV'에 재난 브이로그를 찍어 올리고, 둘의 이야기는 조금씩 유명해진다. 해리와 해수는 구조될 수 있을까? 아니 집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 아웅다웅 남매의 집 탈출 어드벤처!

심사평

아이들은 재난의 와중에도 즐거움과 행복을 찾고 숨 쉴 구멍을 만든다.
언제나 현재가,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만큼 잘 보여 주는 이야기가 또 있던가. 송수연(아동문학평론가) 심사평에서

작가의 말

혹시 어느 날 문이 사라진다면 자신의 마음을 살살이 살펴보세요. 사람마다 열리는 문이 다르답니다. 힌트를 주자면, 사실 문은 어디에나 있어요. 지금 당장은 문처럼 보이지 않더라도 말이지요. 김은영

활동! SOS! 집에 갇혔어요!

아침에 눈을 떠 보니 아파트의 현관문과 창문이 모두 사라졌어요.

집에 갇힌 해리와 해수는 어떤 일들을 맞닥뜨렸나요?

해리와 해수가 쓴 생존 일지를 채워 보세요.

첫날

해리의
생존 일지



집에서 모든 문이 사라졌다.

처음으로 라면을 끓였는데 ().

저녁에는 해수가 설거지를 하다가 ().

둘째 날

해수의
생존 일지



어른 없는 집에서 처음으로 자 보았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유정란 세 알을 ().

열흘

해리의
생존 일지



망치를 벽에 내리꽂고 펜치로 벽을 파 보았다.

우리 위치를 알아낼 수 있게 목청껏 노래를 부르며 이리저리 뛰었다.

하지만 탈출 시도와 구조 요청은 ().

삼주

해수의
생존 일지



누나랑 자주 싸우게 된다.

오늘은 몰래 초코볼을 먹다가 누나한테 걸렸는데,

그것 때문에 ().

한달

해리의
생존 일지



집 안을 뒤지다가 아빠의 노트를 발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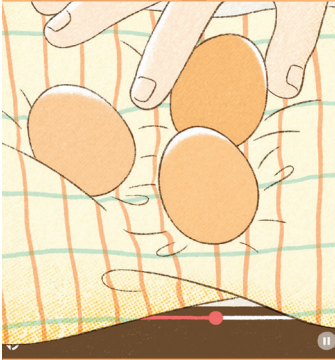
그날 밤 끄끙 앓다가 일어났다.

무심코 화장실 천장을 올려다보다가 () 결심했다.

해리와 해수는 갑작스럽게 닥친 일을 어떻게 헤쳐 나갔는지,
또 나라면 어떻게 했을지 이야기해 보세요.



- 해리와 해수는 바깥 세상과 어떻게 연결이 되었나요?
-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집 문이 사라졌다면, 나는 가장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 부화한 유정란은 어떻게 되었나요?
- 해리와 해수가 재난 상황을 헤쳐 나가는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 ‘안했슈 TV’를 보고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 내가 ‘안했슈 TV’ 영상을 봤다면 어떤 댓글을 달았을까요?



- 선화는 해리와 해수를 찾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 내가 해리와 해수 엄마였다면 아이들을 찾기 위해 어떤 방법을 써 보았을까요?



- 해리 아빠가 노트에 그린 꿈을 가리키며 어떤 얘기를 해 주었나요?
- 해리는 탈출을 결심하면서 왜 해병이를 떠올렸나요?

활동2 내가 만약 재난을 당한다면

갑작스럽게 큰일을 당한다면,
그래서 혼자 힘으로 헤쳐 나가야 한다면 나는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내가 해 본 일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확인하며,
나의 재난 대응 능력을 점검해 보세요.

내가 해 본 일을 찾아보자!

해리와 해수가 해 본 일 중에서,
내가 해 본 일에 ☒ 표시하세요.

해리가 해 본 일

- ☐ 전기밥솥 사용
- ☐ 전자레인지 사용
- ☐ 가스불 사용
- ☐ 깨진 그릇 조각 치우기
- ☐ 유리조각을 밟은 동생 발 치료하기
- ☐ 세탁기 돌리기
- ☐ 화장실 청소하기
- ☐ 라면 끓이기
- ☐ 달걀 프라이 만들기

해수가 해 본 일

- ☐ 설거지하기
- ☐ 달걀 부화시키기
- ☐ 엄마 없이 잠자기
- ☐ 해볼테냥 같은 상상친구랑 놀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

▶ 집에 있는 재료로 내가 할 수 있는 요리는 무엇인가요?



▶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써 보세요.

활동3 생존 배낭 꾸리기

우리 모두 일상생활 속에서 뜻밖의 재난을 겪을 수 있어요.

재난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것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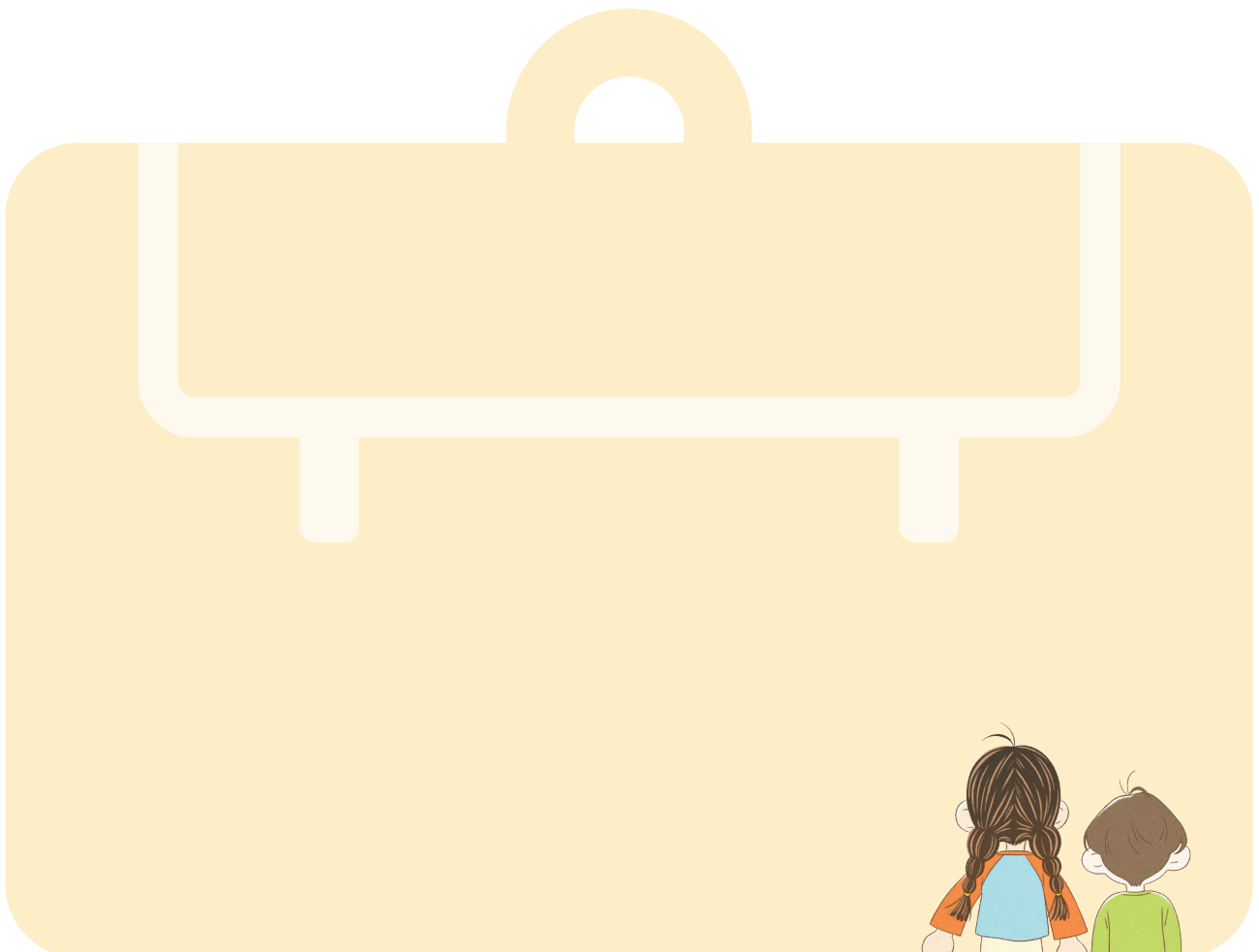
담아 두었다가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생존 배낭’이라고 해요.

나만의 생존 배낭을 꾸리고, 무엇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 재난 상황에서 생존에 꼭 필요한 물건 10가지를 골라 보세요.

☐ 지도	☐ 라디오	☐ 물	☐ 비옷	☐ 지퍼백
☐ 다용도 끈	☐ 신분증	☐ 약	☐ 수건	☐ 세면도구
☐ 다용도 칼	☐ 랜턴	☐ 사탕	☐ 담요	☐ 마스크
☐ 양초	☐ 방수 성냥	☐ 라면	☐ 배낭	☐ 물티슈
☐ ライター	☐ 초코바	☐ 핫팩	☐ 침낭	☐ 구급상자
☐ 나침반	☐ 참치 통조림	☐ 고체연료	☐ 호루라기	☐ 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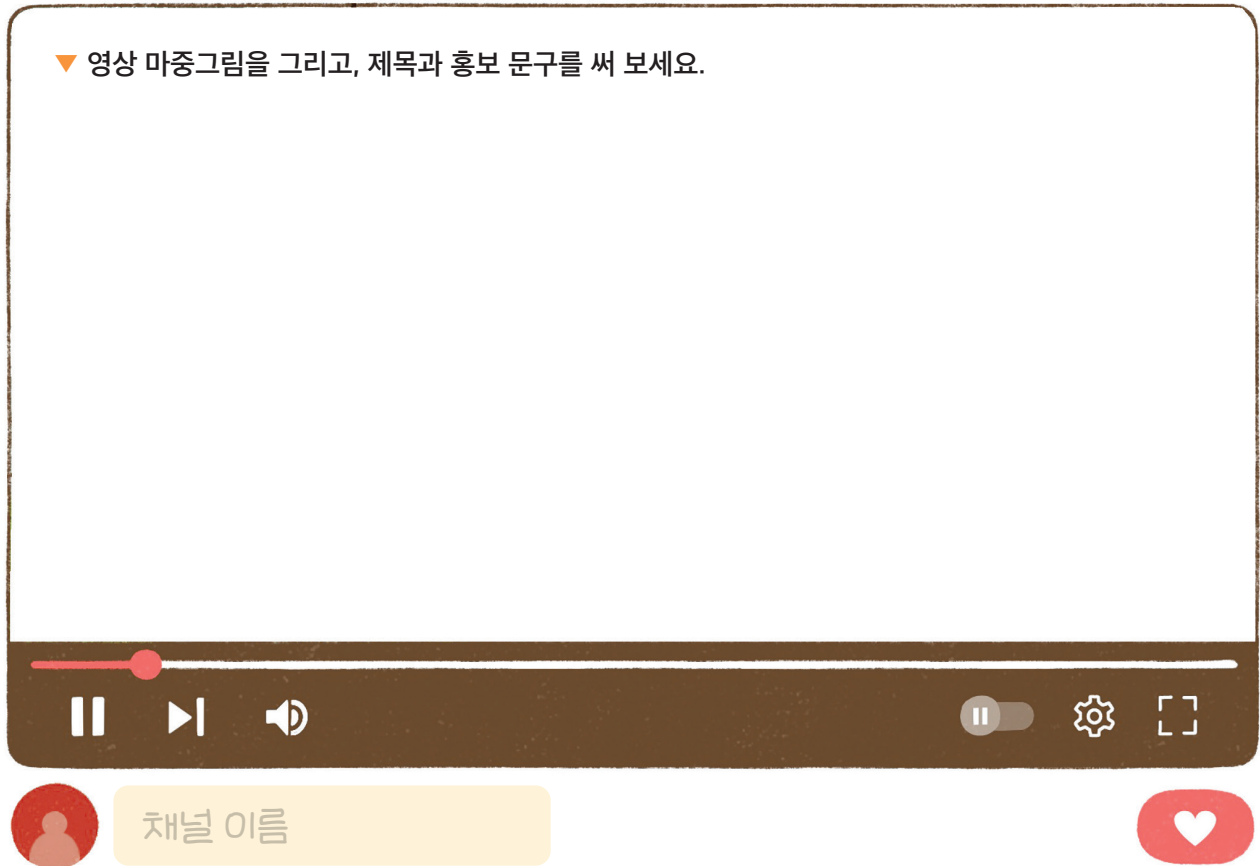
▼ 내가 고른 물건을 배낭에 그려 넣고, 왜 필요하다고 생각했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4월 4일 나도 크리에이터!

『어느 날 문이 사라졌다』를 읽고 난 느낌을 유튜브 영상으로 찍어 볼까요?
내 느낌을 솔직하게 이야기해도 좋고, 책 속 인물과 인터뷰하듯이 해 보아도 좋아요.

▼ 영상 마중그림을 그리고, 제목과 홍보 문구를 써 보세요.



▼ 영상에 내보낼 이야기를 글로 써 보세요.

A large yellow rectangular area with horizontal white lines for writing. On the left side, there are white circular punch-hole marks. In the bottom right corner, there is a small cartoon illustration of a yellow cat sitting and looking up.

활동5 문을 열면

해리는 짝 막힌 알에서 껍데기를 깨고 나온 해병이를 보며 집을 탈출하기로 결심했어요.
나는 마음속으로 닫아 둔 문이 없나요? 내가 열어 보고 싶은 문들을 떠올려 보세요.

▶ 열어 보고 싶은 문이 있나요?

- 용기가 없어 열지 못하는 문
- 껍데기를 깨고 나오고 싶은 문
- 나 스스로가 가로막고 있는 문



문이 없으면
내가 문이 되는 거야!



▶ 닫힌 문을 여는 열쇠는 무엇일까요?
